

채권시장 ‘단비’ 전기세 인상… 한 숨 돌린 카드론 금리

금융업계, 전기료 인상 환영
회사채 등 조달부담 완화 기대
대출 금리 인하 여력도 생겨
“시장 안정화 위해선 더 올려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론 금리 인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적자를 지속한 한국전력의 환급 능력이 커짐에 따라 채권 시장에 훈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됐다. kWh(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른다. 지난 1분기(13.1원) 인상분을 고려하면 올해 kWh당 총 21.1원 상승했다.

정부는 그간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인상을 미뤘지만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감당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의 발행 채권(한전채)은 70조원 규모다. 한전채는 한국전력이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만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론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큼 초우량 등급인 ‘AAA’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수익률은 연 3%대로 ‘뽄뽄한 채권’으로 불리며 채권 시장 내 ‘골칫덩이’였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사채, 여전채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기준 올해만 7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조달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에 따라 채권 투자심리가 확대되면 여전채(AA+, 3년물) 가중금리(스프레드) 축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아울러 1분기 카드업계는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순수익 감소가 이어졌다. 조달부담 완화 여부는 ‘단비’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조달 비용 증가는 카드사뿐 아니라 여전업계 전반에 고충으로 다가왔다”며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 문을 닫은 중소기업도 영업재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여전사의 조달 비용이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금융권에서 기대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올해 kWh당 51.6원이 상승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올해 kWh당 30원 넘는 수준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는 것.

시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반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남은 2분기 동안 kWh당 30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료가 총 21.1원 올랐다. 이번 인상안은 시장 컨센선스(Consensus)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인카금융서비스

매출 전년비 30% ↑
1분기 역대최고 실적

인카금융서비스의 1분기 실적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16일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116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12억원으로 같은 기간 147.36%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5.70%나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분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인카금융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우수설계사 유입 및 지난 3월 600억원 규모의 자금 마련으로 영업력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1면 ‘세계경제 시한폭탄…’서 계속

주변국 주가 급락 등
세계경제 혼란 불가피

결국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채무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시는 폭락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국내 코스피(KOSPI)는 8월 초부터 일주일간 17% 가량 폭락했으며 1801.35포인트(p)까지 급락했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이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를 사들여 재정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국채 가치가 하락(국채금리 상승)하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 또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JP모건체이스 은행도 디폴트가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부채한도의 협상 타결 전에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거나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2011년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상향 관련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타결이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한 협상을 요구 중이다. /구남영 기자

“해외여행시 카드 분실·복제 피해 주의”

신용카드 부정거래 사기 고도화
서명 필수, 분실시 즉시 신고를

#.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던 A씨. 현지직원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결제가 용이한 점을 노린 범죄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 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1만 7969건, 49억10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 때문이다.

신용카드 부정거래 건수·금액은 ▲2019년 2만4866건 85억원 ▲2020

년 2만217건 62억5000만원 ▲2021년 1만7969건 49억10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을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출국전에는 카드사에 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둬 카드 분

실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로 해놓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을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인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해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 결제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 행동요령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화재, 펫 커뮤니티 ‘O모O모’ 가입자 10만명 돌파

보험 브리핑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활용 소통
대학생 에세이 공모 시상식 개최

삼성화재가 펫보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다양한 연령층 고루 가입

삼성화재는 고객 호평에 힘입어 펫 커뮤니티 서비스 ‘O모O모(오모오모)’의 가입자 수가 출시 6개월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모오모’는 반려동물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다. 나만의 반려동물 캐릭터를 만들어 앱 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나이대가 선호하는 앱이 아닌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가입했다. ▲10대(15.6%) ▲20대(26.1%) ▲30대(23.9%) ▲40대(20.5%) ▲50대(11.4%)로 순이다.

지난달에는 리뉴얼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3D기반의 캐릭터 활동공간에서 커뮤니티는 웹(2D)으로 전환하여 접

근성을 높였다. 게시판은 카테고리를 분류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규 기능인 아이템캐릭터 꾸미기를 행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

교보생명이 광화문글판을 활용한 소통에 나섰다.

◆ ‘광화문글판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교보생명은 광화문 본사 도전실에서 ‘2023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에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 관계자, 이정화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편 사장은 “여러분의 재능, 노력, 진심이 담긴 글이 인정받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훌륭한 성과”라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교보문고에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단짠’, ‘동행’을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교보생명은 수필가 이슬아부터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와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했다.

교보생명은 대상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300만 원과 명예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으로 문안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김정산 기자